

전주국제영화제 예매율 역대 최고

일반 예매 오픈 동시 기록... 전체 판매분 85% 이상 예매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공동집행위원장 민성욱·정준호)가 일반 예매 오픈 동시에 역대 최고 예매율을 기록하며 국내외 영화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이에 따르면 지난 15일 전주 시민을 대상으로 한 사전 매표소 운영 당시부터 오픈런이 펼쳐졌으며, 18일 오전 11시에 시작된 일반 예매는 오픈 후 현재(4월 25일 17시 기준), 전체 판매분의 85% 이상이 예매됐다. 이는 좌석 거리 두기로 매우 한정된 좌석을 운영했던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제외하면 역대 전주국제영화제 중 최고 예매 수치며, 전년 대비 약 26.8% 증가했다.

현재 73편(단편 묶음 상영 포함)의 작품이 전회차가 매진됐으며, 개막식은 단 2분 38초 만에 매진, 일부 상영 회차는 예매 오픈 10초만

에 매진되며 영화 팬들의 뜨거운 열기를 입증했다.

올해의 프로그래머로 참여하는 이정현 배우의 J 스페셜클래스, 그리고 박지환, 서현우, 차우민, 차정우, 이찬형 배우가 함께하는 전주씨네투어X마중 마중 초이스 프로그램 역시 전회차 매진을 기록했다. 이 외에도 배창호 감독, 페드루 코스타 감독, 크리스토퍼 페티 감독, 몬세 트리올라 프로듀서가 참여하는 마스터클래스를 비롯한 영화로의 여행, 영특한 대화, 라이브 필름 퍼포먼스, 전주특독 등 전주국제영화제만의 독창적인 프로그램도 매진 행렬을 이어가며 국내외 영화팬들의 높은 기대를 반영했다. 특히 1,000석 규모의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은 2층 좌석까지 추가 오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3회차가 매진, 다수의 상영회차

가 매진을 앞두고 있다.

다만, 실시간 예매 취소가 가능해 매진된 작품이더라도 상영 10분 전까지 예매 가능하다. 티켓을 예매하지 못했더라도 영화의거리와 관객거점도시 전주시 전역에서 무료 야외 상영이 다채롭게 진행돼, 전주국제영화제를 찾는 관객들과 전주 시민들 누구나 편하게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5월 2~6일까지 조선시대 핵심 문화유산인 전라감영 서편지에서 '조선잡' 공연과 영화 상영이 결합된 '전주씨네투어X산책' 프로그램이 마련돼, 색다른 문화 경험을 선사한다. 또한 전주 부성길과 영화의거리 일대에서 소규모로 진행되던 골목상영도 전주시 전역으로 확대해 더욱 풍성하게 펼쳐진다.

예매는 영화제 공식 홈페이지(<https://www.jeonjufest.kr/>)와 멜론 티켓(<https://ticket.melon.com/>) 및 현장 매표소 등 정해진 예매처에서만 해야 한다. /장은성 기자

남원시, '춘향제향' 5월 1일 개최

여성제관 참여 유일한 제례의식

대한민국 대표 전통문화축제 95회 남원 춘향제가 오는 5월 1일 오전 10시, 광한루원 정문 앞 메인 공연장에서 춘향의 낮을 가리는 전통 제례행사 '춘향제향(春香祭享)'으로 의미 있는 시작을 알린다.

춘향제향에는 제전위원, 시립국악단, 지역 관계자와 시민 등 약 4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여성 제관이 중심이 되어 접시례, 분향례, 전폐례, 참신례, 초헌례, 아헌례, 종헌례, 사신례, 분축례 등 전통 절차로 진행된다.

춘향제향은 1931년 일제강점기 춘향사당을 건립한 후, 단오날인 음력 5월 5일에 열렸던 제례에서 비롯되었다. 민족의식 고취와 열녀 춘향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시작된 춘향제향은,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을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통을 지켜오며 여성



제관이 참여하는 유일한 제례의식으로 그 의미가 크다.

시 관계자는 "춘향제는 춘향제향을 시작으로 본격화되며, 90여 년 넘게 이어져 온 유서 깊은 전통의식이자 춘향제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담은 뜻깊은 행사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제95회 남원 춘향제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광한루원과 요천둔치, 사람의 광장 일원에서 '춘향의 소리, 세상을 엮다'를 주제로 개최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지프지기 발대식 열려

전주국제영화제(공동집행위원장 민성욱·정준호)는 지난 26일 지프지기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서 400여 명의 지프지기가 자



전주국제영화제는 지난 26일 지프지기 발대식을 개최했다.

원활도가 활동을 선언했다. 지프지기 발대식은 전주국제영화제에서 공식 자원활동가 영화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프지기를 공식 인정해 의무감과 소속감을 부여하는 행사다.

집행부의 환영사와 격려사로 시작한 발대식에서 우범기 조직위원장은 "이제 시작될 영화제 기간 동안 때로는 바쁘고 힘든 순간도 있겠지만, 그 모든 시간이 여러분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잊지 못할 순간'으로 남길 바란다"며 지프지기를 환영했다.

한편 전주국제영화제의 역사를 함께 한 지프지기는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 올해까지 약 7천 명이 활동을 이어왔다.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는 4월 30일부터 5월 9일까지 전주 영화의거리를 비롯한 전주시 일대에서 진행된다. /장은성 기자

익산예술의전당, 가정의 달 공연 '풍성'

클래식 · 뮤지컬 · 연극 등 다채

익산예술의전당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클래식부터 뮤지컬, 연극까지 다채로운 기획공연을 선보인다.

28일 익산예술의전당에 따르면 디즈니 인 콘서트 △타카치 콰르텟 with 박혜상 △뮤지컬 청춘연가 △연극 바닷마을 다이어리 가 차례로 무대에 오른다.

5월 3일은 매년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낸 '디즈니 인 콘서트'가 '비욘드 더 매직(Beyond the Magic)'이라는 제목으로 한층 업그레이드된 무대를 선보인다. 오랜 기간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아 온 △인어공주 △라이언 킹 △알라딘 △미녀와 야수부터 △코코 △모아나 △겨울왕국 등 디즈니·픽사 대표 작품의 주제곡이 이어지며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5월 17일 오후 4시에는 세계 최고의 현악사중주단 '타카치 콰르텟'이 창단 50주년을 기념해 소프라노 박혜상과 함께 익산예술의전당을 찾는다. 이번 공연은 2022년 합류한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 메트로폴리탄 오페라가 선택한 디바 소프라노 박혜상과 고전부터 현대를 아우르는 음악적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5월 23일 오후 7시 30분에는 온 가족이 함께 관람할 수 있는 뮤지컬 '청춘연가'가 무대에 오른다. 장례식과 팔순 잔치를 통해 가족, 지역공동체의 갈등·화합을 재미와 감동이 있는 트로트 주크박스 뮤지컬로 풀어낸다. 공연에는 국악인 김영임과 배우 홍지민·김형규·오화라·김찬호 등이 출연하며, 창작곡 '청춘연가'를 비롯해 △님과 함께 △우리 엄마 △한잔해 △이제 나만 믿어요 △안동역에서 등 유명 멜



로디와 함께 화려한 군무가 펼쳐진다.

5월 31일은 연극 '바닷마을 다이어리'가 오후 2시와 6시 30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이 작품은 2015년 제39회 일본 아카데미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포함, 5관왕을 기록하는 등 작품성을 인정받은 고리예다 히로카즈 감독의 동명 일본 영화(원작: 요시다 아키미 만화 '바닷마을 다이어리')를 원작으로 한다.

디즈니 인 콘서트는 48개월 이상, 타카치 콰르텟 with 박혜상 △뮤지컬 청춘연가 △연극 바닷마을 다이어리는 초등학생 이상 관람할 수 있다. 관람료는 R석 5만 원, S석 3만 원, A석 2만 원이며, 자세한 내용은 익산예술의전당 누리집과 전화(063-859-3254)로 확인할 수 있다. /익산=이재준 기자

국립민속국악원, '이야기 보따리' 공연

국립민속국악원(원장 김중현)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를 위한 국악 공연 시리즈 '이야기 보따리'를 5월 10일부터 31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예연당에서 총 4회에 걸쳐 진행한다.

5월 10일에는 국립민속국악원 국악연주단이 출연하는 첫 무대 어린이 국악 뮤지컬 '별이와 무지개다리', 17일 '극단 별 비612'의 그림자 인형극 '이야기 속! 이야기!', 24일 '술술과 친구들'의 어린이 체험형 국악극 '정가네늘보', 31일 '창작집단 깎두기'의 어린이 국악 뮤지컬 '신나는 빨강모자와 친구들'이 진행된다.

공연 전후에는 국악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운영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 찾아가는 전북 마이스 설명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29일 한국과학기술회관(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찾아가는 전북 마이스(MICE)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025 전북 지역 MICE 산업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과학기술회관에 입주한 60여 개 학회 및 협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전북의 MICE 산업 역량을 소개하고, 행사 유치에 위한 맞춤형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전북에서 MICE 행사를 개최할 경우 제공되는 다양한 지원 제도, △2029년 개관 예정인 전주전시컨벤션센터 개발 계획,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 △전주의 대표 숙박 및 연회 인프라인 라한호텔, △전통 한옥호텔

이자 유니크베뉴로 지정된 '왕의지밀' 등 전북의 주요 MICE 인프라와 서비스를 집중 소개한다.

이울러 참석한 학회 및 협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유치 상담을 진행해 실질적인 행사 유치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경운 대표이사는 "전북은 지역 고유의 자원을 활용한 전문적이고, 독창적인 MICE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전북이 학회 및 협회의 새로운 MICE 개최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네트워킹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 2의 중증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